

Haglund씨 병에서 시행한 내시경적 종골 성형술

좋은 삼선병원 정형외과

조형래 · 김진완 · 조재영 · 홍성확 · 최승현

목 적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Haglund씨 병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고 있으나 관혈적 방법의 경우 후족부의 피부괴사나 반흔부의 압통, 아킬레스 건 손상등의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어 내시경을 이용하여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종골 후결절부의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난 후의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5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서 Haglund씨 병으로 진단 받고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어 내시경적 종골 성형술을 받은 환자 6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4례, 여자가 2례였으며 평균 연령은 41세(28~53세), 술전 평균 이환 기간은 3.5년(2~6년), 술후 평균 추시 기간은 18개월이었다. 수술방법은 복외위에서 종골 후결절 상방 4 cm에 내측 및 외측 삽입구를 만들고 4.0 mm 관절내시경과 연마기,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두 삽입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후결절부 상부의 골을 제거하였다. 술전 및 술후 단순 방사선 사진상 Fowler-Philip 각도를 비교 측정하여 적절한 골절제 유무를 판정하였고 술후 임상적 평가는 후족부 동통에 대한 주관적 평가(VAS)를 이용하였으며 Ogilvie Harris Score를 이용하여 기능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결 과

평균 수술 시간은 62분(55~85분)이었으며 술후 단순 방사선 사진상 Fowler-Philip 각도는 술전 평균 82°에서 술후 57°로 감소하였다. 최종 추시상 동통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술전 평균 8.7점에서 술후 평균 2.5점으로 감소하였고 술후 평가한 Ogilvie Harris Score상 최우수 3례, 우수 2례였으나 강직성 척추염을 동반한 1례에서 보통의 결과를 얻었다. 전례에서 아킬레스건 건열이나 후족부 창상과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고 술후 약 6주에 정상적인 신발 착용이 가능하였다.

결 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Haglund씨 병에서 내시경적 종골 성형술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내시경적 종골 성형술은 개방성 술식과는 달리 창상과 관련된 합병증이 적고 조기에 기능적 재활치료가 가능하여 좋은 술식의 하나로 생각되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부착부 건염(enthesiopathy)의 경우에는 적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